

HRD 4월의 이슈

- 6대 핵심 업종의 빈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집중 지원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 직업훈련, 실업자 취업과 기업 매출액 향상에 기여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04

Vol.85
March, 2023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직업훈련 참여 후
취업 확률 향상
25.6%P



첨단분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신규 선정
18개소



기업, 청년 5천 명에
일경험·훈련·
멘토링 제공
74개사



2월 고용시장,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
31.2만 명

빈일 자리를 먼저 채용니다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대 인력난 업종은 제조업,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분야로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고용서비스 확충,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빈일자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

VOL. 85
MARCH, 2023

통권 제 85 호
발행일 2023년 4월 12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052-714-8326
구독신청 및 문의 jycheon47@hrdkorea.or.kr



COVER STORY

빈일 자리를 채우는 일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채우는 일입니다.



책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CONTENTS

HRD 스페셜

- 04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 06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HRD 현장

- 08 직업훈련, 실업자 취업과 기업 매출액 향상에 기여
- 08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 09 202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사업 공고
- 10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약정체결
- 11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선정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증서 수여
- 13 코딩 초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경제적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 13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찾습니다.
- 14 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인력양성 민관 협력 사례
- 15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 16 산업안전 분야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 17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상담 기관 12개소 추가 선정

고용 BRIEF

연구 INSIDE

- 18 '23.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 19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 20 디지털 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정책
- 20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연구
- 21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본조사)
- 21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총람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본 소식지는 사람과 환경에 해가 적은 공기를 인쇄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 재생 필름용지를 사용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은 2050 탄소중립에 함께합니다.



6대 핵심 업종의 빈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집중 지원



2023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6대 핵심 업종의 빈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집중 지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정부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TF)」를 구축하였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

①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산업부)

조선업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15대 사업)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3년 근속시 1800만원 지원)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② 물류·운송(국토부)

운송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23.12.)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23.6.)하여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23~)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③ 보건복지(노동부/복지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23.4.~)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강도 완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④ 음식점업(농식품부)

우수 한식당 세부직종(서버, 그릴마스터 등)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22.8.~)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하여 중점지원업종 재정정 등 개편('23.4.)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 구직활동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개소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홍보한다.

⑤ 농업(농식품부)

농촌인력증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하여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⑥ 해외건설(국토부)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 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또한,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일터혁신 컨설팅('23년 3,100건)과 안전한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확대('23년 27,335대·개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임금·복지격차 완화 △직업훈련 지원 △산업안전 △인력채용지원

*철도·공항·플랜트 등 대형인프라 개발 관련 전문가과정(PPP, PM 등) 도입



직업훈련, 실업자 취업과 기업 매출액 향상에 기여



2023년 3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업훈련, 실업자 취업과 기업 매출액 향상에 기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자 훈련 참여 후 취업 확률이 최대 25.6%P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재직자들의 훈련 참여율 증가에 기업 평균 매출액도 비례하는 경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직업훈련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할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개인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공단은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국대학교와 직업훈련 효과성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12년 기준 총 400만 명(피보험자 및 구직자 각 200만 명)의 데이터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고 2019년까지의 정보를 추가해

분석했다. 훈련 참여 정보와 연계한 결과 직업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약 237만 명으로 실업자 훈련 약 34만 명, 재직자 훈련 약 203만 명으로 구성되어 분석했다. 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따라 군(群)을 분류하고 개인은 취업과 고용유지 및 임금, 기업은 매출액 변화에 중점을 두어 효과성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 훈련(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한 개인은 참여하지 않은 이보다 (제)취업 확률이 최대 25.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와 초기 임금은 측정 시점과 훈련 시간에 따라 달랐으나, 각기 12개월 이후와 140시간 이상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사업주 훈련 등 재직자 훈련에 참여한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비율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6.8%P 더 높았다. 개인의 임금 또한 월평균 14만 원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는 재직자들의 훈련 참여 비율이 10%P 증가하면 평균 매출액이 2.2~2.4% 증가했다.

책임 연구자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충 교수는 “사회·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의 성과를 꾸준히 관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연구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제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2023년 3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사업주 원격훈련, 직업능력개발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 인원 및 신규 사업장 수 최근 3년 내 최대치 | 참여 근로자들은 정보통신 분야를 가장 선호 업종별 실시 인원 및 사업장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2022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현황의 인포그래픽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원격훈련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 인원은 총 1,963,611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5%가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3년(2020~2022년) 내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신규 사업장 수(34,430개)도 가장 많았으며, 2021년 대비 66%가 상승했다.

이밖에, 직전 연도에 원격훈련으로 시범 참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업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수도 2020년 30,852개, 2021년 40,035개, 2022년 44,149개로 매년 증가했다. 원격훈련에 참여했던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훈련 참여로 이어져, 사업주 원격훈련이 사업주 훈련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전 연령대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높은 선호도(총 930,675명)를 기록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선호(508,806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원격훈련의 업종별 실시 인원과 사업장 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업무 공백의 부담이 큰 업종 특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

할 수 있는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와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HRD-NET(<https://hrd.go.kr>) 홈페이지에서 소개 및 안내자료를 볼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 원격훈련 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자료를 통해 사업주들의 원격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훈련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신규 콘텐츠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2023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9일(수)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 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공공부문은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인

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1,587개 기관(민간 930개, 공공 657개)을 인증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접수 및 심사

- 신청접수 3. 29.(수) ~ 5. 30.(화) 18:00 까지 ※ 접수 마감 기한 초과하여 제출한 기관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원칙
- 인증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심사(1단계) 및 현장심사(2단계)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 공공부문 · 대 · 중소기업 700점 이상, 선취업 후학습 기업 7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민간 부문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기업과 조직의 질은 결코 근로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자세로 인적자원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은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온라인·우편을 통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공공부문은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급변하는 업무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약정체결



2023년 3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 약정체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 2개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3개소, K-디지털 플랫폼 13개소 약정 디지털,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월 23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에서 삼성전자 등 18개 기관과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디지털,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훈련 전문성을 보유한 18개 기관을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2개 기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3개 기관), K-디지털 플랫폼(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연번	유형	운영기관명	주요 분야	운영지역
1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 (2개 기관)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평택시
2		한국광산업진흥회	반도체	광주광역시
3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3개 기관)	광주그린카진흥원	자동차	광주광역시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	경기 과천시
5		현대중공업	조선	울산광역시
6	K-디지털 플랫폼 (13개 기관)	CJ올리브네트웍스	클라우드	인천광역시
7		(주)LS	빅데이터	경기 안성시
8		강원대학교	메타버스	강원 춘천시
9		고양산업진흥원	드론	경기 고양시
10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메타버스	부산광역시
1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메타버스	부산광역시
12		(주)멀티캠퍼스	빅데이터	서울특별시
13		순천대학교	AI	전남 순천시
14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전남 목포시
15		알파코	AI	서울특별시
16		청주대학교	드론	충북 청주시
1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	드론	충북 청주시
18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지능형로봇	경기 안산시

공단은 약정식에서 2023년 공동훈련센터별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18개 운영기관과 간담회를 가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점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취업에 정자 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훈련센터는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거점이다. 그중 첨단분야 공동훈련센터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기술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공단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장비 구축비 등 기관별 5년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단은 기관별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K-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공단은 기관별 5년간 인프라 비용 최대 3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SK텔레콤 등 전국 20개 K-디지털 플랫폼에서 12,68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훈련을 하였으며, 삼성중공업 등 전국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4,351명을 대상으로 산업전환 훈련을 한 바 있다.

공단은 내년에도 운영기관을 추가 선정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하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동훈련센터 참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약정으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미래 첨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특화형 공동훈련센터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등 74개 기업, ESG 차원에서 청년 5천명에 일경험·훈련·멘토링 제공



2023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카카오 등 74개 기업, ESG 차원에서 청년 5천명에 일경험·훈련·멘토링 제공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CJ 올리브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농협 등 14개 신규 프로그램,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선정 한덕수 국무총리, 2023년 청년친화형 ESG 지원 사업 신규 참여 기업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증서 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월 17일(금)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에는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CJ올리브네트웍스, 농협중앙회, LG 시연연구소 등 큰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TV, 씨엔씨레블루션(웹툰 제작), 알비더블유(엔터테인먼트), 딥노이드(SW, AI) 등 다양한 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총 14개 프로그램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이에 2023년에는 2022년부터 계속 운영되는 하나금융,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등의 11개 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25개 프로그램을 통해 5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훈련 등 청년들이 바라는 직무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신규 기업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및 기업·청년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경총은 3월 17일(금)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14개 프로그램의 대표 기업에 대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과 함께 멤버십 가입증서를 각 기업에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카카오 흥은택 대표,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 등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들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청년친화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22년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CJ 올리브네트웍스(리모트 인턴십)와 (주)카길애그리퓨리나(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가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추진방식 등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2022년 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프로그램 평가단으로 참여한 청년,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원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청년도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도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의 미래가 우수한 청년인재 확보에 달려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 친화 ESG 사업을 통해 청년도약 멤버십에 가입하신 여러분은 청년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일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정부는 미래 경제의 주역인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 친화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3년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LG Aimers 디지털

- 온라인 교육과 해커톤(온/오프라인)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과 실제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통한 실무형 고급 AI인재 양성
- AI 전공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 온라인 학습기회 제공하며 해커톤을 통해 리더급 연구원의 멘토링 실시, 취업을 위한 컨설팅 진행

참여기업 (주)한경닷컴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창직

- 지역 문화 생태계 형성 일환으로 청년 창작자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현장과 디지털이 융합된 단계별 교육 제공
- 5개 분야(로컬 크래프트 / 아트 디자인 / 북컬처 / 웰니스 펫 /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론교육 과제실습,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창작자 양성

참여기업 주식회사 어반플레이



뷰티 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 뷰티

- 뷰티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뷰티산업 분야 직무 교육, 실습, 현직자 참여 직무 탐색 멘토링, 자기 돌봄 클래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메이크업/헤어/라이브커머스 분야별 직무교육 참여 후 인턴십, 디자인 및 상품기획 등의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직무탐색 및 관련분야 취업 역량 향상

참여기업 사회복지법인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카카오 테크 캠퍼스 디지털

-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직무훈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IT인재 육성 프로그램
- 지역 대학생에게 100% 온라인 실습 기반의 프로젝트 교육을 제공하여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주니어 개발자 양성



리얼!웹툰!잡!카데미 미디어(웹툰)

- 웹툰 PD, 스토리, 작화과정 등 이론 및 실무경험 교육을 통해 웹툰 분야를 희망하는 비전공자 대상 교육 운영
 - (예비 웹툰 잡카데미 트랙) 지방 학생 대상 웹툰산업과 전망 등에 대한 교육 운영
 - (리얼 웹툰 잡카데미 트랙) 웹툰 PD, 스토리작가, 웹툰작화 작가 교육과정 3가지 직무에 대한 직무훈련 후 가상회사 모델 안에서 일경험을 지원

참여기업 (특수법인)한국전파진흥협회



코딩 초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경제적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2023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코딩 초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경제적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24개 기관에서 77개 과정 신규 공급 | 멀티캠퍼스, 멧쟁이사자처럼, 나우코딩랩스 등 인기 훈련기관 참여



한국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상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멀티캠퍼스, 멧쟁이사자처럼, 나우코딩랩스 등 민간의 인기 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4개 기관, 77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훈련과정을 훈련생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하는 훈련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3,4학년, 구직자, 재직자(일부 대기업 근로자 제외) 등 취업 또는 직업능

력을 높여려는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훈련 시 훈련비의 10%를 부담했다가 80% 출석 시 환급).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직무와 디지털·신기술을 결합한 직무융합과정, 메타버스 등 그간 개설이 부족했던 과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고, 대학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었다. 기존 과정과 이번에 선정된 과정을 합치면 총 35개 기관 215개 과정이 개설되어 디지털 분야 수

강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 폭이 더욱 다양해졌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디지털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코딩 초보라 하더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과정을 경제적 부담 없이, 원격훈련으로 수강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K-디지털 기초역량」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찾습니다.



2023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24개 기관에서 77개 과정 신규 공급 | 멀티캠퍼스, 멧쟁이사자처럼, 나우코딩랩스 등 인기 훈련기관 참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20(월)부터 4.19(수)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1997년부터 이어온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이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 직업훈련 분야의 중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및 산업전환 훈련 분야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직접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추천포상제」를 활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 대상별 접수기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추천포상제」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개검증을 시행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5.<화> 예정)」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포상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인력양성 민·관 협력 사례



2023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인력양성 민·관 협력 사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블루핸즈,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는 현대자동차 고양 하이테크 센터에서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수소·전기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패편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비인력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비업체들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역별 친환경차 정비인력 수요조사부터 훈련

실시, 훈련수료생에 대한 채용까지 친환경차 정비인력 전 과정에서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23년 훈련 목표인원은 2,000명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훈련과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훈련 과정의 설계 및 훈련 교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루핸즈는 지역별 채용수요 파악 및 훈련수료생을 채용하는 역할을 맡아서 협업을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흐름도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 각자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첫 번째 모범적인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개요

- 목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 공급, 훈련비 지원 등
- 예산 / 훈련인원 766억원 / 2만명 ('23년)
- 우대사항 ①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수시심사 허용 ② NCS 지원단가의 300%까지 훈련비 인정 ③ 특별훈련수당(월 20만원) 추가 지급*(기존 훈련장려금 11.6만원) *육성산업·직종에 속하면서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대상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직무역량이 시시각각 변하는 등 노동시장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직업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은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원하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은 “고용노동부, 블루핸즈와의 함께 우수한 친환경차 정비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이교열 현대자동차 종합블루핸즈 정비가맹점 연합회장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인력 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박민수 현대자동차 정비가맹점 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자동차 정비는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정비인력이 더욱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나서서, 정비인력 양성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며,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2023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월 27일(월)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3년 6개 조선사에서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

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22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 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하여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 분야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2023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안전 분야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별 인력 수요와 숙련 수준을 파악
실무 인재를 적기 양성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월 7일(화)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 KISA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 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안전 보건 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최근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던 경력직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제조업체 중심으로 안전보건 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안전보건 분야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고 그간 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인력 수요 파악이 어렵고, 산업별로 안전보건 관리 직무 내용이 다르고 이론·자격증과 실무 간 격차가 커 직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 하고 업종별·직무별 인력 수요와 숙련 수준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 양성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대표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서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안전보건 분야의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기 양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2023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상담 기관 12개소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실시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스카우트부설평생교육원, 맥시머스 등 민간의 역량있는 상담기관 12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하여 강의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년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고 있다.

주요 상담 사례

■ 상담사례①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70세 회사로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젊음을 바쳐 온 회사에서 나갈 때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인생 후반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신청하였다. 그는 직업선택도 검사 결과 자신의 선호활동이 ‘상담’, ‘교육’, ‘봉사활동’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동안 회사 생활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교육자의 꿈을 다시 꺼내 구체화하고 싶어졌다. 그는 현재 사내에서 산업안전교육 담당자 업무를 자원하여 맡고 있고, 보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학원을 다니고 있다. 또한 회사에서 담당했던 기획 및 대외입찰 업무에 대한 교육 사업을 염두에 두고 코칭 과정에 입문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등 활발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 상담사례②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인중개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40세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력전환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상담 초기 나이가 많다는 점과 새로운 일·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으나, 담당 상담사의 격려와 직무 강점 진단 등을 거치면서 점차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경제적 사정으로 단기 재취업이 필요하여 경력전환보다는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자신의 경력에 기초 O자격을 취득하여 리츠기업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49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상담 과정을 제공하여 중장년 근로자의 상담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들을 계속하

여 확보해 나가고 있으니 중장년 근로자들이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 훈련포털 누리집(www.hrd.go.kr)을 방문하여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2월 고용동향



2023,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3년 2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고용지표는 고용률·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개선, 취업자 증가폭 둔화

- 15세 이상 고용률(+0.5%p)과 15~64세 고용률(+0.6%p) 동반 상승, 실업률(3.1%)은 0.3%p 하락
- 취업자 수는 +31.2만명 증가(24개월 연속 증가), 실업자 수는

- △6.4만명 감소(23개월 연속 감소)
-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4개월 만에 증가(+27.7만명) 전환
-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는 긍정적이거나, 인구 감소(△19.1만명)·기저효과 등에 따른 청년층 취업자 감소 등은 한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고용률(15~64세) 및 증감(% , %p)



- 산업별로는 제조업 감소 지속, 보건복지·숙박음식업 증가
- (제조업) 생산·수출감소 등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축소
- (서비스업) 보건복지(25개월) 및 숙박음식업(10개월) 취업자 증가 지속, 다만 증가폭은 축소
- (건설업) 날씨(기온상승)·건설경기 영향 등으로 감소폭 축소
- 인구영향 등으로 고령층 중심 취업자 증가, 청년층40대 감소
- (고령층)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 지속(25개월 연속)
- (청년층) 전년도 큰 폭의 증가(+26.3만명)에 따른 기저효과 및 인구 감소, 경기둔화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감소폭 확대)
- (40대) 인구감소(△10.4만명)에 따라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되었으나, 고용률은 유지

- 상용직, 전일제(36시간 이상) 중심 증가
- (지위별)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 임시·일용직은 감소세 유지
- 고용원외 자영업 지속 증가, 고용원내 자영업 감소폭 감소
- (시간별) 전일제(36시간 이상) 근로자 증가
- 취업자 증가폭 둔화, 고용률·실업률은 전년과 유사 전망
- '22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취업자 증가폭 둔화요인 지속
- 다만, 일상회복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둔화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
- 고용률 및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 고용상황 변화에 선제 대응하면서,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

- 「일자리 전담(TF)」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여건 개선 및 원활한 일자리 수급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등 旣 마련된 일자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
-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구인이 어려운 업종을 점검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수출·투자 총력 지원, 규제혁신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이달의 키워드(워드클라우드)

2023년 HRD동향 4월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HRD동향 4월호 워드클라우드



기업



훈련



HRD

4월호에는 직업훈련 효과성 평가 연구 발표, 사업주 원격훈련의 현황 분석 등의 소식이 전해졌으며, 기업들의 훈련 참여 확산(공동훈련센터 약정체결,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등)도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등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HRD 생생정보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 개발의 자름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입·교육·훈련·자격 연계의 핵심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기준이자 핵심 개념입니다.

NCS,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3년 선제정비 등 240개 직무 개발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NCS 직무는 총 1,083개

2023년 현재 NCS 직무 총 1,083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460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운영기관 213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누적) 6,264기업

NCS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는?(중복 포함)

74.8% : 약법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71.4% : 공기업 외 중견기업 NCS 기반 채용 확대

53.6% : NCS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기타 0.2%

NCS 도입을 희망한다면?

NCS 기업활용 컨설팅

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직무분석, 역량 모델링 도출, 맞춤형 채용 평가도구 등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NCS 활용을 지원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신청 방법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해 무료 컨설팅을 신청해보세요!

참여방법

1. NCS 누리집 접속
2. [기업활용] 클릭
3. [컨설팅안내] 클릭
4. [컨설팅신청] 게시판 하단 신청하기에서 작성

NCS누리집 (www.ncs.go.kr) 접속



디지털 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정책



- 2022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류기락, 김봄이, 안우진, 김윤아, 여영준, 이승윤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디지털 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정책**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 및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그 중 직업능력의 개발과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직업능력정책을 사회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는 방안 제시
- 직업능력정책의 재정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혁신 요인을 선취하면서 사회불평등에 대처하는 직업능력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지향을 제시하고, 스킬의 개발과 보호, 활용을 연계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정책, 직업능력정책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정책방향 제시

☑️ 주요목차

- 이론적 논의
 - 디지털전환과 노동환경의 변화
 - 직무변화와 기업조직 · 숙련투자의 불평등
 - 포용적 노동시장과 직업능력정책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 디지털 전환기 숙련과 불평등
- 디지털 전환과 일터혁신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연구



- 2022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봄이, 손규태, 안선민, 이은영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비대면 교육훈련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비대면 교육훈련 내실화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비대면 교육훈련의 확대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교육훈련에 도입하는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선도적 대응 방안 제시
- 대면 교육훈련의 대체성 및 보완성에 대해 분석하여 비대면 교육훈련의 속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훈련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 제공

☑️ 주요목차

- 비대면 교육훈련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비대면 교육훈련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비대면 교육훈련의 현황 분석
- 비대면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
- 비대면 교육훈련에 대한 현장 의견 분석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본조사)



- 2022년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숙원, 김안국, 임언, 윤수린, 유명환, 문상균, 이은혜, 최현식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본조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2007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 OECD의 PIAAC(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성인 능력 수준과 직무에서의 활용 정도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 실시

☑️ 주요목차

- 예비조사 데이터 사후 작업 및 본조사 문항 선정
- 본조사 교육
- 본조사 표본추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조사 설계 및 시스템 작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총람



- 2022년 11월, 한국고용정보원
- 방글, 김진영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0~2030 총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0-2030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표나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력수급전망 결과 제시

☑️ 주요목차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총괄
- 인력공급 전망 결과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 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사업 개선방안



- 3.7.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3.8.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기관 선정
- 3.8. 국무총리-고용노동부차관,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현장방문
- 3.15. 친환경차 등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15.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 3.17.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선정
- 3.20.~4.19.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신청·추천 접수
- 3.29.~5.3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신청·접수



- 4월중. 분당융합기술교육원 하이테크과정 심화 모듈 모집
- 4월중.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신입생 모집
- 3.17.~5.19. 2023년 NCS기반 블라인드 사무직원 공개채용



- 4.5.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 공고
- 4.4.~4.12. 2차 신입직원 채용 공고
- 4.19.~4.2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반기 전국 세미나



- 3.30.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엠베서더 위촉식
- 4.7. '22년도 일학습병행(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 4.11. '23년 ESG지원 청년공감평가단 발대식
- 4.3.~4.7.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 4.11. 기계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개소식
- 4.11. '22년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계획공고 실시
- ~5.17. '23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신규 지정 종목 추천 수요조사 실시



- 3.16.~3.17. 2023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계획서 작성 설명회
- 3.21. 2023년 지역훈련수요조사 제2차 심층조사 역량강화 세미나
- 3.21./3.23./3.28./3.30.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 4.7.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2.0 마이크로 교육과정 설명회
- 4.12. 2023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상반기 컨설팅 워크숍
- 4.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중앙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식
- 4.13.~4.14. 2023년 신규 임용 마이스터고 교장 특별연수
- 4.20.~4.21. 2023년 상반기 마이스터고 담당자 워크숍



- 3.3. 대학 정문 환경개선공사 준공식
- 3.9. 2023년 공공기관 안전협의회 정기세미나 개최
- 3.10. 제9대 총장 이임식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설명회 서울, 경기(4.4.), 광주(4.5.), 대전(4.6.), 대구,제주(4.7.) 부산(4.10.), 집체신규,원격 온라인(4.11.)
- 3.30. '23년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심사 계획 공고
- 4.5. 직업훈련기관 대상 부정훈련 예방교육(부천)
- 4.7. '23년도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심사(2차) 계획 공고
- 4.18. '23년도 1차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 발표
- 4.19. '22년도 1차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선정기관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발표
- 4.20. '23년도 제3차 원격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

(22. 12월말 기준)

'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근로자) 훈련과정 NCS별 현황

NCS별 원격훈련 실시인원(대분류)	2위
1위: 경영·회계·사무 (20,818명)	법률·경찰 (5,830명)
3위: 금융·보험 (5,165명)	2위: 경영기획 (3,691명)
	3위: 사무행정 (3,323명)

'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과정 NCS별 현황

NCS별 원격훈련 실시인원(대분류)	2위
1위: 경영·회계·사무 (12,948명)	사회복지종교 (2,278명)
3위: 문화·예술 (2,253명)	2위: 회계·감사 (2,570명)
	3위: 사무행정 (1,481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 시장규모

원격훈련 실시과정수 (단위: 개)

2020년 33천 (4.4년) → 2021년 42천 (5년) → 2022년 38천 (4.9년)

원격훈련 실시인원수 (단위: 명)

2020년 10만 → 2021년 13만 → 2022년 18만 (36% 상승!)

* 22년: 근로자 5.5만명, 실업자 2.5만명, 특화훈련 9.9만명

'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특화 훈련) 훈련과정 NCS별 현황

* 특화 훈련: 플랫폼 종사자훈련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NCS별 원격훈련 실시인원(대분류)	2위
1위: 정보통신 (76,724명)	문화·예술 (10,918명)
3위: 운전·운송 (9,621명)	2위: 응용SW (9,612명)
	3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812명)

연령별 원격훈련 선호분야

'22년은 정보통신이 최고 인기

연령대	1위 분야	2위 분야	3위 분야
20대 (31,903명)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
30대 (304명)	정보통신	사회복지종교	문화·예술
40대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
50대	정보통신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
60대	정보통신	문화·예술	법률·경찰

'22년 기타 현황

원격훈련 접속경로 비중: 크롬 87.8%, 인터넷 익스플로러 5.8%

지역별 원격훈련 참여율: 서울 34.397%

원격훈련 실시인원 치사당 평균 접속 시간: 43.8분

원격훈련 시간대별 접속 인원

훈련생 최대 접속시간대: 15시 (38만명)

'21년에도 15시가 가장 많았어요!

HRD종합서비스와 함께 능력개발전담주치의(HRDDoctor)가 중소기업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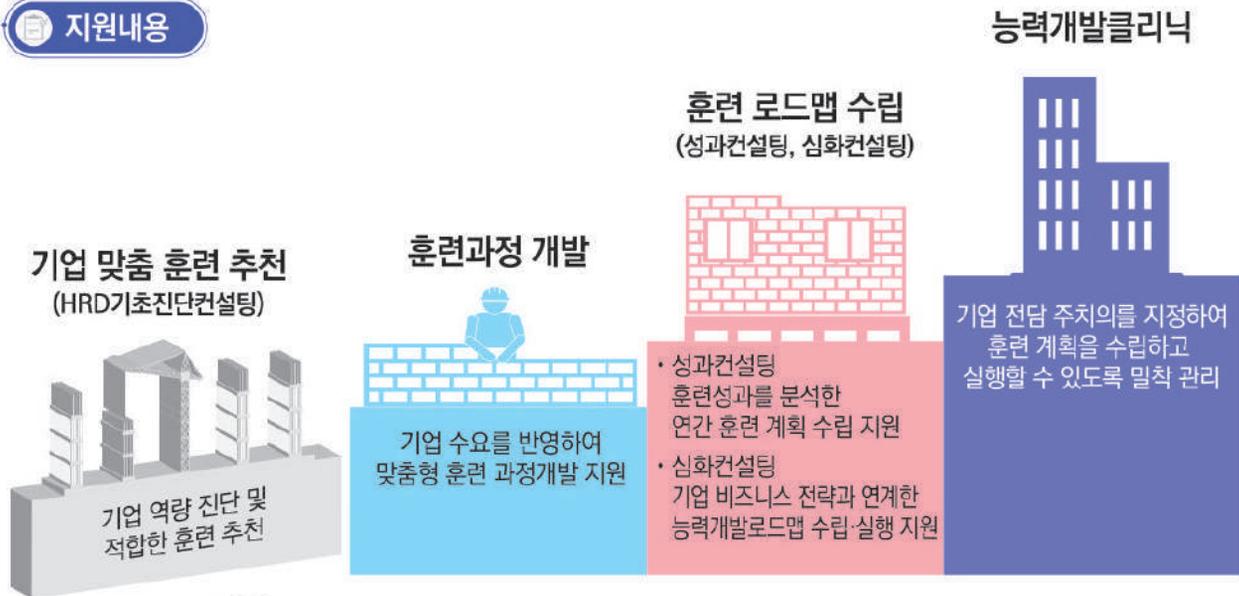
능력개발전담주치의란?

HRD전문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훈련역량 고도화를 위한 능력개발클리닉(기업별 밀착관리)까지 HRD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문의 1644-8000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지역 주치의 현황



보다 빠른 상담(컨설팅 신청)

